

“요시아(Josiah)- 예배의 회복 with The Bible

1st, 10, 2017 중고등부 설교안

[본문말씀] 역대기하 34장

1. 인물배경

- a. 남유다 12대왕- 아하스/ (왕하16:2~3) 자기 자녀들을 불속에 지나 우상들에게 이르게 함
- b. 남유다 13대왕 -히스기야/ 다윗과 같이 행함, 성전척결, 앓수르와 산헤립 침략시 이사야의 기도로 물리침
- c. 남유다 14대왕- 므낫세/암흑시대- (대하33:2-6) 바알 제단만들,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함.+ (왕하21:6)-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> 주님의 분노를 일으킴/ 11-13절- 주께서 아시리아 군대로 므낫세를 징계함/(12절) 고통중에 주께 간청...자신을 그분앞에서 크게 낮춤...많은 고난 이후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./-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דם(회개한 열매)
- d. 남유다 15대왕- 아몬(요시아왕의 아버지)-(대하33:22-23) 주의 눈 앞에서 악행,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더 범법함.-> 자기 돌무덤에 묻힘(왕하21:26)-회개 없음의 결말
- e. **교재- p4 함께 읽어보기(요시아 왕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자)**

1.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.

[대하34:1-7]

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...

(3절) 통치 제8년(16세): 자기 조상 **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함**

통치 제12년(20세):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함.->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함

- a. 동사에 집중: 바알들의 제단들을 **헐었으며...** 형상들을 **찍어서 떨어뜨리고...**
부어 만든 형상들을 **산산조각 내며...** 가루로 만들어...**뿌리고...**
(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) **태워...**곡괭이로...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있던 모든 우상을 **찍어 버린**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.
- b.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,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동안 훼손당해 온 일을 철저히 응징함
- c. 우리는 어떠한가?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이 훼손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?
요시아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? 다윗의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였기 때문
- d.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음.
ex) 은사주의자- 치료, 기적, 물질 축복의 하나님
 율법, 경건주의자- 심판, 정죄, 무서운 하나님
 자유주의자- 탈권위, 소수자인권존중, 사람을 구하는 일이면 어떤 수단, 방법도 용납됨
 온라인신자- 효율적(?)으로 예배, 내 시간 활용에 유익
- e. 우리는 안전한가? 성경신자들의 실수할 위험요소는? 나는 KJB를 보니까 남달라, 나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교회다니니까 괜찮아, 오전예배 드렸으면 됐지 일요일 오후에는 내 시간 갖는게 죄인가?(적당히 타협하는 마음 vs 어쩔수 없는 상황)

f. 그럼 다윗의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?

-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고, 어느 상황(골리앗과 전투, 사울에게 쫓김, 자식들의 반역, 친구의 배신, 아내 미갈의 비웃음 등등)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다윗의 믿음의 본을 따르라는 말.

- 어떠한 상황, 나의 어떠한 굴하지 않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길 기도함.

2. 예배의 회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

[대하34:14-21]

a. 요시아왕 통치 18년(26세)

1)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주의 율법 책을 발견함/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? 혹시 교회에서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해매는 사람이 있는가?/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습관 갖자

2) “책”이라는 표현이 무려 8번 언급./ (18~19절) 주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->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나? (21절이 핵심)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.

b.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,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!!/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성경인물들의 사례를 곰곰이 생각해보길.(사울, 다윗, 솔로몬, 요아스 등등)

c.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 하는데에서 비롯함.

-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-> 각종 프로그램, 현란한 CCM, 워십 댄스, CCM-rock, Rap, Jazz 등등(인간이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의 방법)/

- [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]

- ★[대하7:14]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. (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)

d.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

- ★[대하34:27] “하나님의 말들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.”(요시아)

e.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? 주일에 치러야 할 미션, 습관, 안하면 왠지 이상한 그런것인가? 예배시간은 시간 낭비인가?(그 시간에 내 공부, 자기 계발 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생각) NO! 오히려 거룩한 시간 낭비라 할 수 있음.

- worship(worth+ship): 어근-‘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려드린다’=>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는 것

- 사랑에 빠진 남녀를 비유(상대방에게만 집중,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고, 내것을 내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음)->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(내것이라 여겼던 물질, 시간, 나의 계획 등등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)

f. ★롬12:1-2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

- 왜 하필 우리 몸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?(요일2:16-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몸의 감각을 유혹하는 마귀의 것들이 가득하기에-> 거룩히 분리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심)

-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? 2절,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변화 by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!!

3. 정리★

첫째, 우리가 구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.

둘째, 영적 부흥은 예배의 회복에서 비롯된다. 그리고 그 출발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

4. 나눔

Q. 예배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? 예배시간과 내 계획이 겹칠 때,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나요?

Q. 오늘 설교말씀을 듣고, 예배에 대한 나의 변화된 생각을 나누고 다짐을 적어봅시다.